

- 주요 뉴스: 美 3월 소비자심리 2년래 최저, 관세정책 여파로 기대인플레이션은 급등
 - 독일 정치권, 대규모 인프라·국방 특별예산 협상 타결
 - G7 외교장관, 러에 휴전안 수용 촉구. 우크라이나는 보다 강한 對러 압박 요청
 - 미국 상무장관, 다음달 2일 한국·일본·독일 자동차에 상호관세 부과 시사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트럼프 관세 발언 자제, 저가 매수세 등으로 위험선호 회복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소비자심리 악화에도 저가 매수세 등으로 큰 폭 반등
유로 Stoxx600지수는 독일의 대규모 인프라·국방 특별예산 합의로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독일 특별예산 합의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으로 하락
유로화 가치는 0.3% 상승, 엔화 가치는 0.6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, 독일 영향 등으로 상승
독일은 대규모 특별예산 합의로 2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448.8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1.2원, 0.12% 하락). 한국 CDS 하락

		3/14일	3/13일	전일대비			3/14일	3/1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638.9	5,521.5	+2.13%	국채 금리 10y	미국	4.31%	4.27%	+4bp
	유럽	546.60	540.44	+1.14%		독일	2.88%	2.86%	+2bp
	중국	3,419.6	3,358.7	+1.81%		영국	4.67%	4.68%	-1bp
	일본	37,053	36,790	+0.72%	CDS 5y	한국	31bp	32bp	-1bp
	한국	2,566.4	2,573.6	-0.28%		중국	49bp	49bp	-0bp
환율	달러지수	103.72	103.84	-0.11%	위험 지표	EMBI+	372	379	-7bp
	유로화	1.0879	1.0852	+0.25%		VIX	21.77	24.66	-11.72%
	엔화	148.64	147.81	-0.56%		WTI유	67.18	66.55	+0.95%
	위안화	7.2374	7.2432	+0.08%	원자재	구리	487.0	489.9	-0.59%
	원화	1,453.0	1,457.0	+0.28%		금	2,984.2	2,989.2	-0.1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3월 소비자심리 2년래 최저, 관세정책 여파로 기대인플레이션은 급등

-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57.9로 전월(64.7)과 예상치(63.2)를 큰 폭 하회하며 '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.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.9%로 전월보다 0.6%p 오르며 '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기록
- 미시간대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큰 변화는 없지만 노동시장, 인플레이션, 사업환경, 증시 등의 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악화되었다며 경제정책의 잦은 변화가 소비자들의 미래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
-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지출 억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,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관세 정책의 물가 영향이 일회성일 것이라는 연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독일 정치권, 대규모 인프라·국방 특별예산 협상 타결

- 기독교민주당·기독교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, 녹색당은 14일 인프라·국방 특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법 개정 합의. 이에 따라 오는 18일 연방의회 본회의에서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
- 인프라 예산 €5천억은 작년 연방정부 예산(4,657억)보다 많은 것으로 앞으로 12년간 사용되며, 국방예산도 연간 정부부채를 GDP의 0.35% 이하로 제한한 기본법의 예외를 적용 받아 대폭 늘어날 전망
- 시장에서는 독일 등 유럽 각국의 국방비 증액이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우려

■ G7 외교장관, 러에 휴전안 수용 촉구. 우크라이나는 보다 강한 對러 압박 요청

- G7 외교장관은 미국이 제안한 '30일 휴전안'을 환영하면서 러시아가 동등한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. 러시아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추가 제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
-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보다 강한 압박에 나설 것을 요청

-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, 푸틴 대통령은 이 요청을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군의 항복을 촉구.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 복원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

■ 미국 상무장관, 다음달 2일 한국·일본·독일 자동차에 상호관세 부과 시사

-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4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, 독일 등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평할 것이라고 언급

■ ECB 정책위원, 인플레이션 재개 위험 증대로 4월 금리 동결 지지

-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재개될 위험이 커졌으며 4월 금리인하의 일시 중단을 지지. 아울러 독일의 방위비 지출 확대가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며 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

■ BoA, 미국 증시 추가 약세 시 트럼프 행정부도 대응에 나설 것

- 마이클 하트넷 최고 투자전략가는 최근 주가 하락을 약세장이 아닌 조정장으로 평가하고, 주가 약세가 경기침체 위험을 높이는 만큼 추가 하락 시 무역 및 통화 정책이 다시 친시장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관측

■ EU,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막판 연장. 비료는 사실상 수입중단 추진

- EU는 16일 0시 만료를 앞두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한 개인 및 법인 2,400여건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. 아울러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비료 수입 중단을 목표로 최고 100%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합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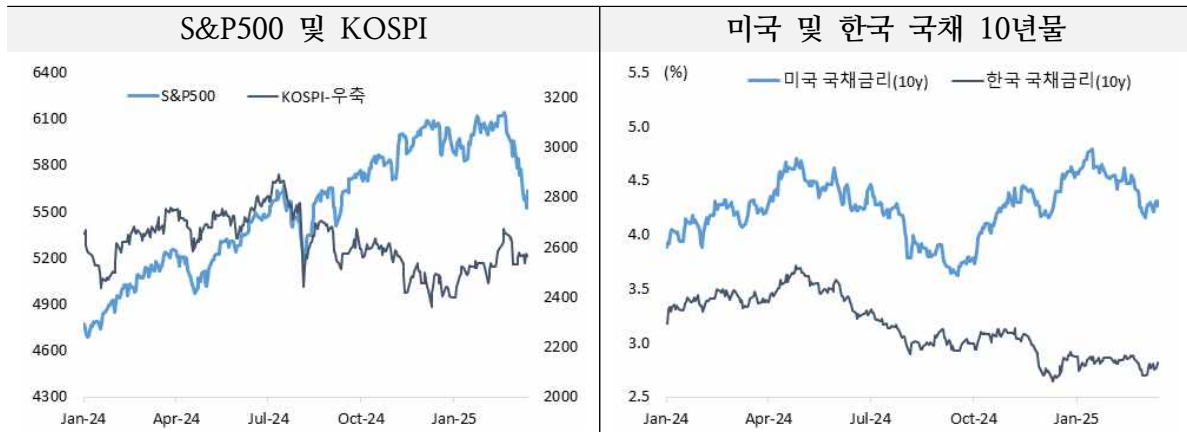
■ 마크 카니 총리 취임, 캐나다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

- 14일 취임한 카니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및 주권 위협에 맞설 것이며, 캐나다는 어떤 방식,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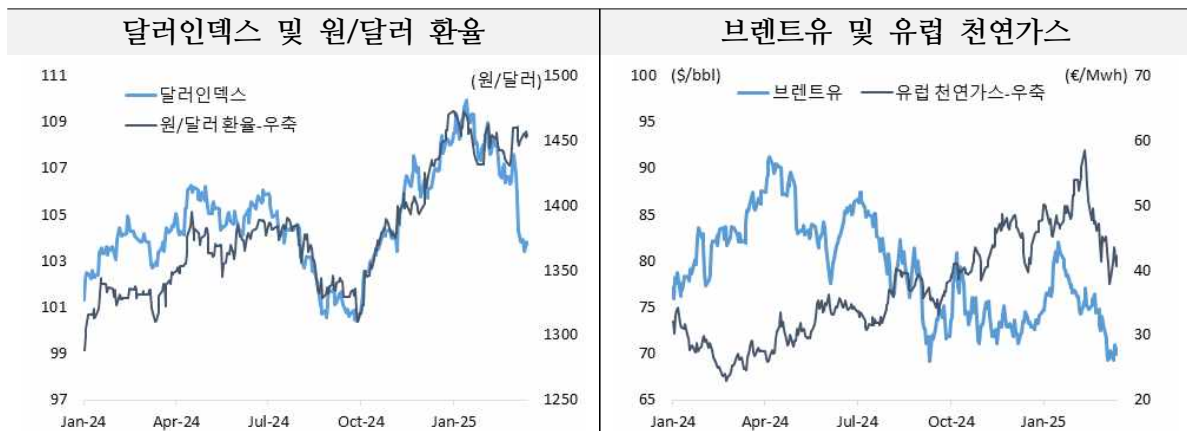
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, 가자지구 휴전협상 재개 동의

- 하마스는 중재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자지구 휴전 2단계 문제의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.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(※이스라엘-하마스 휴전 1단계는 이달 1일 종료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